

은 日本彌生式 前期와 後期에서 보는 것처럼 小兒 또는 幼兒用的 棺이고 이 墓地가 아이들을 위한 共同墓地임을 말하고 있다.

採集遺物로는 地表에서 靑銅製 劍把頭飾 一、扁平磨石斧 一、埋葬層에서 磨石鏃 一、鐵片 二、棺內에서 鐵片 一、그리고 棺外에 副葬品으로 놓여 있던 小坩 三이 있을 뿐이며 棺內에 充滿된 土壤속에는 人骨이 散은 것 같은 흔적이 보이는 것이 있었으나 骨片, 其他 副葬品은 하나도 없었다. 劍把頭飾, 石斧, 石徑은 이 甕棺時代에 屬하는 것이겠지만 副葬品은 아닌 듯 생각된다. 아무 副葬品 없고 封土도 없는 어린이 埋葬이었다고 생각된다.

나 地面傾斜를 따라 東側即 頭部가若干 높음)로 묻혀 있으며 東西를 長軸으로 하고 있었다. 이렇게 얇게 묻힌 까닭으로 耕作時에 가래로 잘리워 上半部 또는 全部를 破壞當하고 있는 것이 殆半이며 完全한 것은 八個에 不過하였다. 甕棺은 大小 두 개의 廣口狹底甕을 合한 것이 殆半이지만 세 개를 合친 것도 있었다. 그런데 全長 六一七〇cm가 普通이고 最大의 것이 全長 一·三m에 이를

이 甕棺群의 時代·性格 등에 關해서는 앞으로 報告書속에서 論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速斷을 내리려 하지 않으나 넓은 意味에서 所謂 金海時代의 어느 部分에 屬할 것이며 짧은 一雙의 손잡이, 石粒이 섞인 粗質胎土 등은 金海甕棺보다 東萊甕棺과 恰似하다. 發見遺物이 貧弱해서 年代決定 등에 困難은 느끼지만 至今까지는 처음 發見된 甕棺群集地였으며 유리나라는 勿論 日本의 甕棺研究上 貴重한 新資料라고 생각되는 바이다. 더구나 그것이 다음 三國時代에 있어서의 甕棺盛行地에 位置하고 있다는 事實이 興味있으며 過去이 地方 三國時代 甕棺墓가 時期的으로나 地理的으로 分離·獨立된 것으로 보고 「아마 日本人의 墓였을 것이다」라고 推測한 過去 一部 日本人學者들의 說이 成立되기 어렵게 되었다.

이번 發掘을 위해 여러가지로 協助해 주신 全南道文化課 여러분 全南道文化財委員會의 魯錫僊, 梁會采, 丁鍾俠 諸氏에게 謝意를 表하는 바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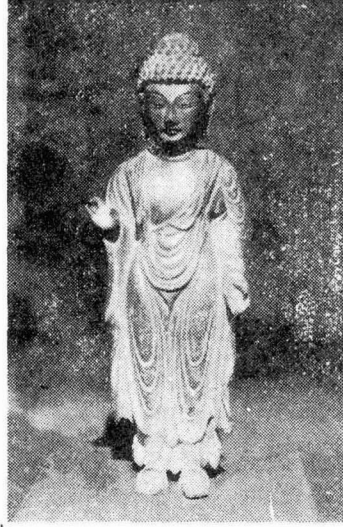
金銅如來立像과 菩薩立像

秦 弘 燮

最近 大邱에서 優秀한 金銅佛像 二軀를 調査하였다. 아마도 地下에서 出土되었으리라 생각되나 出土地는 不明이고 發見時期는 數年前인 듯하다. 註 모두 保存狀態가 良好하고 彫刻이 매우 優秀하여 여기 記錄하여 두고자 한다.

(1) 如來立像

또렷도렷한 螺髮에 肉髻가 比較的 크다. 눈은 鳳眼이며 兩眉는 半月形, 여기서 흘러내린 鼻梁은 突出하다. 兩耳는 그다지 긴 편은 아니고 口唇이 똑똑하다. 兩頰에는 그다지 살이 없는 便이고 三道가 뚜렷하다. 法衣는 通肩하였고 胸部는 露出한데다가 左肩에서 비스듬히 늘어진 法衣



에서 衣端한가닥이 밑으로 걸쳤고 兩쪽 팔에 걸쳐서 앞으로 흐른 衣文은 매우 流麗하다. 이 衣文은 발목에서 一旦 걸렸고 그 밑으로는 裙衣가 따로 발목을 덮고 있는 듯하다. 두 손은 通印인 듯한데 五指를若干안으로 꾸부렸으며 두 발은 앞을 向하고 있다. 鼻端과 手足에 若干의 損傷이 있을 뿐 完存하며 鍍金도 完全히 남아 있다. 背面은 頭部와 胴體에 孔穴이 남아 있는데 頭部는 背後까지 螺髮이 있다. 衣紋은 左側에서 若干 衣端이 後面으로 돈 部分이 表現되었을 뿐 右側은 側面에서 끊쳐서 後面에는 頭部를 除하고는 거의 彫刻이 없다. 本像은 典型的인 新羅銅佛이다. 肢體의 整頓됨이나 衣文이 얇아서 肉體의 表現에도 相當

히 留意한點이나 두 다리에 나타난 平行 弧線의 表現等 모두 格式을 따랐으며 頭髮、顔面、衣文等의 刀痕은 매우 刻明하다. 발 밑에는 축이 달려 있어 臺座에 꽃혔던 모양이며 등 뒤에도 光背를 꽃았던 突起가 있다. 臺座나 光背가 없음을 哀惜한 일이지만 近來에 보기 드문 優作이며 製作年代도 八世紀中葉을 前後하지 않을 까 생각된다. 像高一七·五cm

三

(2) 菩薩立像

높은 髮髻 밑에 三面花冠을 썼고 豐饒한 毛髮이 그 밑으로 보이고 있으나 側面에는 긴 귀가 보일 뿐 毛髮의 垂下는 보이지 않는다. 比較的 豐滿한 顔面인데 兩眉는 半月形으로 높기 치켜졌고 兩眼은 半開正眼이다. 적은 코에 鼻梁이 높고 큰 입에는 威嚴이 가득하다. 짧은 三道가 있으며 넓고 짧은 목결이 있고 목결이에 連結된 듯한 一條의 줄이 내려와서 腹前에 있는 蓮花에 모였다가 다시 三條의 垂飾이 내려는데 三個씩의 瓔珞이 달렸고 中間의 것은 발목까지 내려왔다. 두 어깨에서 가려운 天衣자락이 두 가닥 내려졌는데 바람에 불려 屈曲을 지었고 한 가닥은 左手에 가볍게 얹혀 있는 듯하다. 右手는 外掌하면서 들어서 無畏印을 하고 있으며 左手는 늘어트렸다. 두 발은 若干 벌린 채 앞을 향했고 발 밑에는 축이 있어 臺座에 꽃친 듯하다. 臺座는 八瓣으로 된 仰蓮 伏蓮이 連絡되었고 밑에는 八角 받침이 붙어 있다. 이 蓮瓣은 끝이 若干 들렸으며 仰蓮은 素瓣인데 伏蓮은 一條의 陰刻線이 半圓形으로 그려있을 뿐이다. 背後의 彫刻은 特別한 것이 없으나 어깨를 덮은 半圓形의 衣端、左手의 鉤 그리고 前面 腹前蓮花에서 뒤로 돌린 裙衣 끈과 그 밑으로 前面의 衣文으로 보아 裙衣가 접혀내린 것을 나타낸 듯한 橫線이 있을 뿐이다. 다만 臺座만은 뒤에도 蓮瓣이 完全히 나타나 있다.

이 佛像 亦是 保存狀態는 比較的 良好하여 臺座에 若干의 損傷이 있을 뿐이다. 雄麗한 面相、正面直立한 均衡 있는 姿勢、自由로운 衣文의 處理 伏蓮의 形式等 相當히 洗練된 方法을 보이며 一部에서 高古한 樣式을 남기고 있다. 이런 點은 이 佛像의 製作을 八世紀 前半期로 推定케 한다. 像高一三·五cm

四

이 佛像들의 出土地는 勿論 出土經緯에 對하여도 全然 알 길이 없음을 매우 遺憾이며 또 앞으로 누구의 保護를 받게 될지 모르겠으나 如何든 여 기 紹介되어 同學諸氏의 記憶에 남게 됨을 多幸으로 생각된다.

(註) 이 一軀의 佛像은 盜掘嫌疑를 받아 一時 官憲에 押收된 바 있었고 그때 調査에 依하면 一九五八年 發見된 것이라고 傳한다.